

말씀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번 10¹⁹⁹⁵

특별 부록 : 어린이단





표지 설명

대관장단은 그들이 성회에서 부름받았던
1996년 4월 연차 대회 동안에 회중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앞쪽;
제바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중앙;
제바보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뒷쪽;
몬슨 부대관장과 파우스트 부대관장에 관한
기사가 이번 호에 실려 있다.
사진 촬영: 데저렛 뉴스사, 롱 사이트

어린이란 표지 설명

전세계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매년 특별한
성찬식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이번 해의 프로그램은 신앙개조에 관한 것이다.
그랑 엘리스 나브 블랙

일반

| | |
|-----------------------------------|----|
| 대관장단 메시지: 신앙: 참된 종교의 진수 | |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2 |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프랜시스 엠 기븐스 | 8 |
|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16 |
| “너희로 실족지(마음이 상하지)않게 하려 함이니” | |
| 페리 엠 크리스텐슨 | 28 |
| 바울의 선교 여행에 나오는 장소들 | |
| 켄트 피 잭슨 | 34 |
|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법을 배움 | |
| 데이비드 모라자 브리토 | 46 |

청소년란

| | |
|-----------------------------------|----|
| 모범은 가장 큰 소리로 울려 퍼짐 아네트 안토닐리 | 24 |
| 소망할 때 게리 크리스텐슨 | 26 |
| 몰론 메시지: 지혜의 말씀은 | 33 |
| 가슴 가득한 사랑 마일스 티 투어슨 | 42 |

정기특별기사

| | |
|---------------------------|----|
| 애독자 편지 | 1 |
| 방문 교육 메시지 : | |
| “그분의 말씀으로 더 많은 소망을” | 25 |

어린이란 (별책 부록)

| | |
|--------------------------------------|----|
| 이타코아티아라에서 드린 기도 크리스레인 다 실바 브리질 | 2 |
| 심심풀이 | 4 |
| 느낌이 있습니다 캐더린 퀸 포키스 | 5 |
| 친구가 친구에게: 로렌 시 던 장로 | 6 |
|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법률을 지킬 것을 믿는다 | |
| 수잔 엘 워너 | 8 |
| 이야기: 훌륭한 이름 루스 릴리엔퀴스트 | 10 |
| 몰론경 이야기 : 감옥에 갇힌 리하이와 니파이 | 13 |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모니아, 스웨덴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재임즈 이 파우스트

심사자:정원화:보이드 케이 패커, 윌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리얼 앤 빌슨, 윌리엄 에이지 독스, 윌 리얼 벨리드, 조셉 비 웨스턴, 리처드 지 스킵,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윌 윌러드, 헨리 비 아이어럴

편집인:렉스 디 피네가, 조 세이 크리스티슨
고문: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콘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로널드 엘 나이텐

기획 및 편집 책임자: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앨런 글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앤 앤 가와시카
성도의 빛:

관리 편집인: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알 발 존슨

부편집인:데이비드 마켈
편집인 보조/어린이:디앤 워커

스캐폴드 관리자:대리엔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스콧 디 밴 켈렌

디자이너:새리 쿡
생산 관리자:레이날드 제이 크리스티슨, 제인 앤 피터스

테니스 컵비, 미튜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태프:

발행 부서 책임자:토머스 엘 피터슨
배부 부장:조이스 헨슨

마케팅 부장:조이스 헨슨,켄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제355호, 제32권, 제1호
통 권:1987년 10월 4일, 라-3106

발행일:1995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사 원

편집인:원성의
발행소: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클북빌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삼림인쇄주식회사 김형수
©1995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3 번역 승인-10/93

October 1995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 95990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900원입니다.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대만, 홍콩 등)16,200원, 3지역(중동 등)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훌륭한 선교사

저는 푸에르토리코의 폰세 출신으로서 현재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구적으로 리아호나를 읽음으로써 저는 더 훌륭한 사람과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개종담을 읽고 저는 여러 차례 구도자가 겪었던 경험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그들의 필요 사항을 깨닫는 것은 제게 도움이 됩니다.

알렉스 곤잘레스 장로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선교부

다른 사람과 나눔

세이포 노 미찌(일본어 판)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잡지에 실린 메시지와 기사에 담겨 있는 권고들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으로서 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 책을 나누며, 그들에게 이 책의 귀중한 내용들과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사루 후꾸오카
오가끼 지부
일본 나고야 서 스테이크

가장 귀중한 것

침례받은 이래 오 년 동안 세이포 노 미찌(일본어 판)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출판된 많은 잡지 중 제게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 책이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전세계의 성도들이 이 책을 다양한 언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무척 기쁩니다.

유키꼬 마쯔우라
그로브랜드 제2와드
아이다호 블랙풋 남 스테이크

영감을 주는 잡지

저는 교회 회원이 된 지 이 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제게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얘기해 준 캐나다 출신의 친구를 만났던 그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포트아프린스 센트럴 지부 지부장단 제2보좌입니다.

물론경은 저의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제게 끊임없이 위로를 줍니다. 저는 그 책을 날마다 읽습니다. 그 책의 가르침은 제게 다른 경전에 대한 통찰력을 안겨 줍니다.

저의 또 다른 동반자는 르 에프와르(프랑스어 판)입니다. 그것은 제게 많은 영감을 주는 최고의 잡지입니다. 저는 전세계 성도들에 대한 기사를 즐겨 읽습니다.

주드 더블류 진-뱃티스테
아이티 포트아프린스 남 지방부
아이티 포트아프린스 선교부

훌륭한 향유

저는 직장 출퇴근 때문에 매일마다 112킬로미터 정도를 오갑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제가 출퇴근할 때 가지고 다니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 잡지는 훌륭한 향유입니다. 그것은 제게 위안을 주고 저를 새롭게 해주며, 영감을 주고 우리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막달레나 데 피타
산 아시드로 와드
파나마 산 미구에리토 스테이크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신앙: 참된 종교의 진수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얼마 전에 저는 한 유명한 저널리스트의 말씀에 관한 신문 보도를 읽었습니다. 그는 “확신은 종교의 적이다.”고 말했던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그 말은 제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확신을 완전하고 절대적인 보증이라고 정의하는데 그것은 종교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진수입니다.

확신이란 확실성입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그것은 지식에 가까운 신앙의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식이란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것은 열의를 불러일으키며 반대와 편견과 무관심을 극복하는 데 있어 그 열의에 필적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불확실한 토대 위에 결코 큰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지도자를 통해 결코 위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기 위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실천과 노력의 근저에는 언제나 개인적인 확신의 정수인 신앙이 있었으며 또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영광스러운 시현에
관해 전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로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에 의해
계속 메아리치고 있다.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확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5~16)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요한복음 6:66~69)

만일 구세주의 제자들이 그들이 대표하는 분과 그들이 가르치는 그분의 교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느낌을 가졌다면 그들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 계속하여 일하고 그분의 교리를 가르치며 심지어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쳤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을 보고 음성을 들은 후 완전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이상 그는 자신의 시간과 힘과 생명을 바쳐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과 안전을 돌보지 않고 당시에 알려진 세상 곳곳을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요한복음 6:66~69)라고 말했다 때, 그의 마음속에는 굳건한 확신이 있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8~39)

로마에서 처형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확신에 대한 최종적인 간증을 죽음으로 인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옥살이와 고문과 죽음을 감수했던 수많은 초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 휘스, 쾰링글리 및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인들이 담대하게 추진했던 종교 개혁이 확신 없이 일어났겠습니까?

현대에 존재하는 확신

고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그것은 계속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이 없다면 그 영향력을 넓히고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을 추진력도, 힘도 없이 종교적인 대의는 약화될 것입니다. 신학은 설득될 수도 있지만 행동이 수반되는 개인적인 간증은 논박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이 복음의 경륜의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영광스러운 시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경험을 그 지역의 한 목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노하여 그것은 모든 악귀에서 나온 것이며 시현이나 계시 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21)

다른 사람들도 요셉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





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속에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25절)

그 글에는 완전한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에게 그 경험은 한낮의 햇빛이 주는 따스함만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결코 흔들리거나 시들지 않았습니다. 후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그가 가졌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라.”(교리와 성약 76:22~24)

그는 자신이 이끌었던 대의에 대해 확신하였고 신성하게 주어진 부름에 대해서도 것처럼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닥쳐 올 죽

계속해서 개척자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안락한 집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고 어려운 여행동안 죽었습니다.

음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무방비 상태로 폭도들의 손길에 넘겨 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피로써 인봉하였습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행동에서 확신이 종교의 적이라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몇 번이고 그들의 안락한 가정을 떠났습니다. 처음은 뉴욕을 그 다음에는 오하이오 주와 미주리 주를, 후에는 일리노이 주를 심지어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뒤에도 광대한 서부 도처에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 그 곳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참여했던 대의에 대한 자신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고 어려운 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악천후의 희생자가 되거나 적의 잔인한 공격을 받아 죽어갔습니다. 미주리 강과 솔트레이크 계곡 사이의 어딘가에 약 6,000명의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후로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소수의 무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 밝아 올 것이라

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적인 계시로써 회복해 주신 복음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없애줄 빛이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음을 압니다.

“그분은 저의 친구요, 구세주요,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엔사인, 1978년 11월호, 73쪽)

이 사업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

박해와 조롱을 받으며 재물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다른 나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교회를 전진시켜 왔던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확신입니다. 그러한 확신은 이 사업의 초기부터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사업이 진실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에 큰 동기를 부여해 주는 힘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약 47,000명의 선교사들이 가족들에게서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합니까? 이 사업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 회원들은 약 1,000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년 성신의 권세로 감동 받는 수많은 개종자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놀랍니다. 그것은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집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예배드릴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바쳐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에 의한 결과는 확신과 간증을 굳힘

진리를 알고자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러한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직접 그 공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와 모든 진리의 근원에 대해 열심히 구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대로 사는 것 즉,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실험해 봄으로써 얻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성신의 권세로써, 확신과 간증과 분명한 지식은 이들로 부터 얻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써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하며 그 간증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을 잃어 간다면 우리 교회도 다른 많은 교회들처럼 회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회원들이 우리가 간증이라 부르고 성신의 권세로써 주어지며 역경의 폭풍우를 견딜 수 있게 해 주는 개인적인 확신을 구하고 찾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흔들리는 사람, 모호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주장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음 말씀이 적절할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3:15~16)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제가 진리에 대해 증거한 것을 확신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을 압니



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인류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시며 우리 구원의 근원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위대하며 그것에 관한 우리의 신앙은 강하고 분명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1. 확신이란 신념이다. 그것은 지식에 가까운 신앙의 권세로서 오히려 지식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
2. 종교적인 실천과 노력의 근거에는 언제나 신앙이 있었으며 또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3. 주님이 돌아가신 후 사도들은 그들이 가진 확신으로 말

현재 우리 교회에는 약 47,000명의 선교사들이 가족들에게서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합니까? 이 사업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미암아 주님의 사업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바쳤다.

4.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말일의 복음의 선조들은 이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몇 번이고 그들의 안락한 집을 떠났다.

5.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에 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17)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프란시스 엠 기븐스



위: 어린 소년 시절의 톰 몬슨

오른쪽: 1995년 봄에 찍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최근 사진

1927년 8월 21일 일요일, 글래디스 몬슨 부인이 갓태어난 첫 아들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의 세인트막스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남편 지스펜서 몬슨은 그녀에게 그날 파이어니어 스테이크 제67와드의 새로운 감독이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 말에 아기 어머니가 "당신의 새 감독이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한 것이 그대로 예언처럼 실현되었다. 1950년 5월 7일에 그 아들, 토마스 에스 몬슨은 그 와드의 감독으로 지명되었다. 부친과 외조부인 토마스 샤프 콘디의 이름을 이어받은 이 아들은 아직 23세도 되지 않아, 아마 교회에서 가장 나이 어린 감독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와드는 85명의 미망인이 포함된, 회원 수가 1,000명이 넘는 와드였으며, 교회에서 가장 큰 복지 업무를 지고 있는 와드였다.

나이 어린 감독이 과연 이 엄청난 행정적인 부담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빛나간 것이었다. 당시로는 어렸으나, 토마스 몬슨은 아주 경험이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감독단 보좌로 일했으며, 미국 해군의 재향 군인이었고, 유타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이었으며, *데저렛 뉴스*의 광고 매니저였고, 아름다운 신부, 프랜시스 비버리 존슨과 결혼도 한 상태였다.

일단 직무를 맡게 되면, 몬슨 감독은 자신의 일에 열성적으로 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전임자의 훌륭한 업무를 계속 이어받은 결과, 어수선한 예배당은 말쑥하게 정돈되었고, 청소년 조직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성찬식 참석수가 급증했고, 가난

한 사람들은 구제되었으며, 미망인들은 위안과 따스한 보호를 받았다. 사실상, 몬슨 감독이 미망인을 돌보는 것은 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탄 절기 때마다 그가 와드 내의 모든 미망인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선물과 축복을 전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것은 관례처럼 수십 년 간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내야 했다. 지금 현재는, 당시의 미망인 가운데 단지 여섯 명만이 생존해 있다. 생존해 있는 분들은 다음 성탄 절기에 그의 방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업적은 알려지게 마련이었다. 1955년 6월에 템플 뷰 스테이크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필시 케이 페처 스테이크 부장의 제2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감독의 이름을 발표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몬슨 감독님은 이 지명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이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금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몬슨 형제는 즉흥 연설을 해야 했다. 연단에서





왼쪽: 십대의 친구들(왼쪽으로부터) 잭 험워드, 글렌 보슨 및 톰 몬슨

오른쪽: 1960년대 말의 토마스 에스 몬슨 가족: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토마스 엘, 앤, 몬슨 장로, 프랜시스 제이 몬슨 자매, 클락 에스

앤 오른쪽: 검은 색 정장 차림의 몬슨 장로가 1965년에 통가 선교부를 방문하여 오른쪽의 통가 선교부장인 패트릭 달튼 부장 및 왼쪽의 달튼 자매와 함께 걷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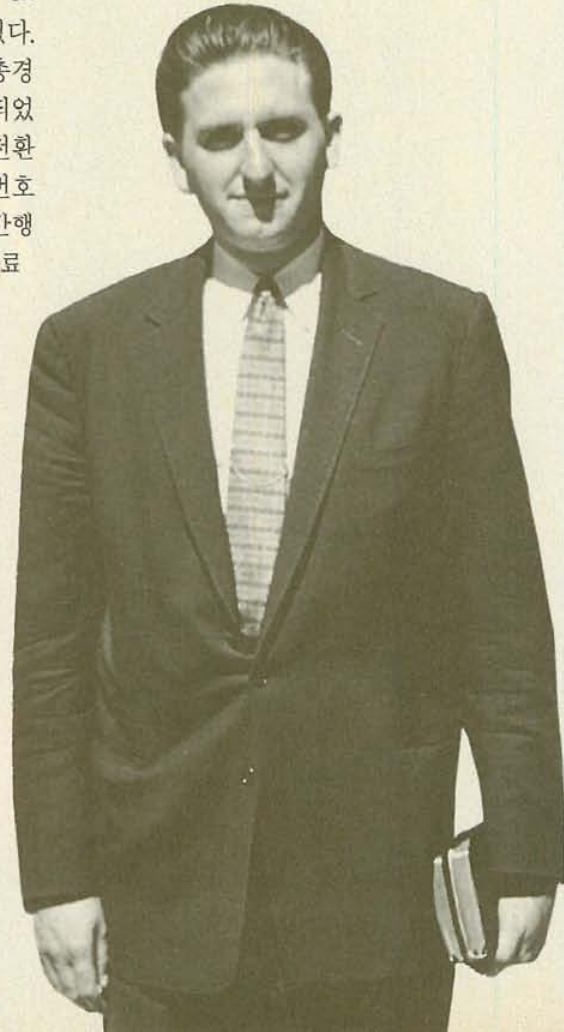
아래: 1955년에 몬슨 부대관장이 템플 뉴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 일할 때 찍은 사진

잠시 서 있던 그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시에 곡을 붙인 교회 초기에 불렀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다: “아들아, 용기있게 아니라고 말하라.” 이어 그는 그것을 “아들아, 용기있게 예라고 말하라”는 주제로 전개시켰다. 이것은 토마스 에스 몬슨의 생애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주제가 되었다.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그는 다른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그 곳과 제67와 드에서의 소년단 일과 그가 맡은 역할은 전미 소년단에서의 그의 탁월한 지도력을 예견했다. 그는 현재 전국 이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봉사한 회원이며, 은곰상과 은버팔로상 수상자이며, 국제 소년단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인 브론즈 울프상을 수상했다. 그가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명예롭게 해임된 것은 그와 프랜시스가 그들의 두 자녀, 톰과 앤을 데리고 할리데이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 갔을 때였다.

한편, 몬슨 부대관장은 사업 면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나갔다. 1952년에

데저렛 뉴스와 솔트레이크 트리뷴지가 신문 대행 회사를 창설했을 때, 그는 광고 매니저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후 곧, 그는 데저렛 출판사의 총경 영인 보좌와 영업 부장으로 지명되었다. 활판 인쇄에서 옵셋 인쇄로 전환하면서, 그 출판사는 주로 전화 번호부, 컬러 삽지, 무역지, 카탈로그, 간행본 서적 및 교회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출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또한 유다 주 출판 제조업 협회 회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일했다. 그는 미국 전세계의 상위 출판업자들과 접촉하는 전미 출판 제조업 협회 이사가 되었다.

데저렛 출판사에서 몬슨 형제는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을 도와 그의 저서 복음의 주님을 출간했다. 그들은 클라크 부대관장의 사무실에서 여러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났다. 그들의 사이는 거의 부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토마스 에스 몬슨이 캐나다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





를 받았을 때, 그는 프랜시스와 자녀들을 데리고 클라크 부대관장을 방문하였다. 프랜시스가 셋째 아이를 임신중이었으므로, 몬슨 부부는 아기가 아들이라면 그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겠다고 말했다. 아기가 클라크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부대관장은 “그냥, 조수아 루벤(구약의 여호수아와 르우벤)이라고 하시지요.”하고 권했다. 클라크 스펜서 몬슨이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태어나자, 아기의 부모는 클라크 부대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다. 그는 아기에게 전해 주는 귀한 편지(몬슨가의 가보가 됨)를 써 주어 화답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토마스 에스 몬슨을 신속하고 결단력있게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참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는 또한 넘치는 활기와 매우 낙천적인 행동파였는데, 그것은 선교부장으로서는 일하면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그의 자질이였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선교사들이었다. 그는 빠르게 그들의 이름을 외웠으며, 규칙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

고했으며, 각자 최선을 다해 자신을 계발하도록 권고했다. 그와 같은 그의 배려로 선교 사업 도중 예정보다 빨리 귀환하게 되거나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는 선교사가 없게 되었다. 몬슨 선교부장 밑에서 봉사한 선교사들 중에는 불명에 해임되거나 봉사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귀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한 지도력은 그의 임기중에 선교사들이 개인별로 개종자와 개종자 침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교회 건물을 세우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에 불을 당기게 된 그의 업적에 잘 반영되어 있다.

몬슨의 임무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교회의 300번째 스테이크인 토론토 스테이크를 조직한 것이었다. 그 일은 마크 이 피터슨 장로가 그 선교부를 방문할 때 이루어졌다. 피터슨 장로와 동행한 엘마 손느 장로가 토요일에 사용한 큰 학교 강당을 주일 예배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남편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군중들이 모이면, 이 건물에 다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

고 프랜시스가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맞는 말이었다. 2,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디온 켈르턴 극장에 차고 넘쳤다. 그것은 그 때까지 캐나다의 말일 성도가 최대로 집합한 것이었다. 근처의 식당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카페인 이 들지 않은 음료만 찾아 당황하다가, 나중에야 물몬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을 되었다.

토론토에 있을 때, 몬슨 부대관장은 캐나다의 유명한 기업가인, 앤 엘돈 태너를 알게 되었다. 처음으로 그를 만나고 선교 본부로 돌아온 틈은 아내 프랜시스에게 “이분은 십이사도 평의회의 회원이 될 운명을 가졌소.”라고 말했다. 알다시피,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역시 대관장단의 일원이 되었으며, 이십여 년 동안 네 분의 교회 대관장을 훌륭하게 섬겼다. 1963년 10월 4일에 앤 엘돈 태너 장로가 대관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되어, 십이사도 정원회에 생긴 공석이 같은 날에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에 의해 채워진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이 두 사람의 첫만남에 관하여 더욱 관심이 집중되



위 왼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고든 비 힝클리 장로 및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연차 대회 기간 중에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과 함께 의논하고 있다.

위 오른쪽: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서의 초기 시절의 몬슨 장로

왼쪽: 1970년대, 발터 킨츠 선교부장(왼쪽)과 구스타프 하이네만 독일 연방 공화국 대통령을 만나는 몬슨 장로

아래: 몬슨 부대관장은 오랫동안 버밍엄 롤러 비들기를 기르는 취미를 갖고 있다.

었다. 그들은 항상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간직했다.

1962년 2월에 캐나다에서 돌아온 직후, 토마스 에스 몬슨은 데저렛 출판사의 총경영인이 되었다. 작업이 고속 통신망 읍셋 장비로 전환됨에 따라 거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모든 기계를 다루는 인력에 대한 완벽한 재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작업에 몰두해야 하고 새로 맡은 증역 위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익혀야 하는 와중에서도, 몬슨 형제는 일련의 교회 본부 업무에 부름을 받게 되었다. 첫번째는 스펜서 더



블류 킴볼 장로가 관장하는 신권 선교사 위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었다. 그후 그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앤 엘돈 태너 장로가 맡고 있던 신권 계보 위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어서 그는 성인 협의 위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고, 매리온 지 름니 장로가 맡은 신권 가정 복음 교육 위원회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해 나가면서, 그는 지명받은 총관리 역원과 함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며 자신이 부름받은 범위 내에서 지역의 스테이크 및 와드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일례로 그가 름니 장로와 함께 일했을 때, 그는 그가 제67와드의 감독으로 일하면서 받았던 많은 근본적인 경험의 주제인 복지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것 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였다.

1963년 10월에 토마스 에스 몬슨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총관리 역원들 앞에서 그의 선교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그들에게 데저레트 출판사 인쇄소를 관람시켰다. 그들은 모두 그의 배경과 학력에 대하여, 그가 와드와 스테이크, 선교부 및 교회 본부 업무에 광범위한 경험을 축적해 온 사실에 대하여 또한 교회 내외에서 그가 맡았던 모든 위치에서 얻었던 탁월한 명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이들 총관리 역원들에게 있어서 맥케이 대관장이 계시를 통해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을 36세의 나이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른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33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던 1910년 이래, 그는 최연소의 나이에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 그가 스테이크와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회원들은 연단에 선 그가 얼마나 유창하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말하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가 스테이크 대회나 선교부를 순회하면서 가르침과 권고를 주게 되면, 그가 지혜와 경험과 영감으로 가득 찬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은 이 젊은 사람을 명확하고 유능한 지도자 이상의 인물로 생각했다. 교회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예언자와 선견자와 계시자가 되도록 전세에서 예임된 사람으로 보았다. 그들은 그를 선조 아브라함의 시현에 나타난 선택된 그룹의 한 사람으로 보았다. (아브라함서 3:22~23 참조) 그들은 그를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그보다 앞서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76명의 역사의 인물들과 똑같이 존경했다.

몬슨 장로의 가족들은 그에게서 이보다 더 큰 것을 보았다. 그들은 또한 그가 유아기 때부터 사도가 되기까지 성장한 과정을 지켜보았다. 사도로서

태버내클 연단에 서 있는 그를 보게 되면,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의 피프트 사우스와 세컨드 웨스트 가에 있는 "테라스" 주택가에서 모든 사람들로 부터 사랑받았던 어린 토미 몬슨에 대한 추억을 지워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연립 주택은 외조부인 콘디가 지은 것으로, 그의 네 딸과 사위들에게 한 채씩 지어준 것이었다. 그는 또한 프로보 리버의 비비안 파크에 통나무 집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여름을 지내곤 했다. 사실, 그는 침대의 증반에 들어설 때까지 매년 7월과 8월의 대부분을 비비안 파크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일생의 취미가 되어버린 낚시를 시작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소년 시절에 낚시대로 낚시질하는 일반적인 낚시를 졸업하고 묘미가 있는 제물 낚시로 들어섰다. 그의 낚시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그와 웬더 맨더닐이 곤충 미끼로 고기를 낚아 "파슨의 영광"이라 불렀던 뉴질랜드에서의 일이었다. 몬슨 형제의 진실성에 대한 명성으로 볼 때, 그 때에 "무게가 5파운드 이상되는" 것으로만 제한한 무지개 송어를 가득 잡았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가정에서 톰 몬슨은 스칸디나비아와 대영 제국에 뿌리를 든든히 박은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부친은 스웨덴과 영국계였고, 모친은 스코틀랜드계

였다. 그들은 그에게 다른 여러 미덕과 더불어 사랑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르쳤다. 테라스가 철도 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부랑자들이 불쑥 몬슨가의 뒷문을 두드리고는 음식을 요구했다. 글래디스 몬슨은 누구든 그대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다. 번번이 그녀는 그들을 부엌으로 불러들여 식탁에 앉히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우유를 곁들여 대접했다. 몬슨 부대관장은 또한 어머니가 만들어 준 뜨거운 음식을 “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외로운 이웃 노인에게 갖다 드리던 일을 기억한다. 그는 “얘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시구나.”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곤 했다. 친절함 그들의 행위는 비단 이런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의 자선 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 모범을 성장기의 소년인 농칠리가 없었다.

몬슨 부대관장은 또한 대공황기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부친이 근면하게 일하는 모습도 빠짐없이 보아왔다. 지스펜서 몬슨은 호텔 숙박자 명부와 메뉴 및 기타 자료를 인쇄하는 웨스턴 호텔 숙박자 명부사의 매니저였다. 어려서부터 톰은 부친을 돕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잔업을 하다가 후에는 출판물 무역까지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는 일에 대한 귀한 교훈과 한편으로 장차 오랫동안 중사

하게 될 사업에 대한 많은 지식도 얻게 되었다. 사실 그는 현재 데저레트 뉴스사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스웨덴계의 혈통을 받아 천성적으로 침착하고 예의바른 프랜시스 몬슨이 스웨덴에서 존슨 가족의 개종을 도왔다는 것이 알려지자 크게 호감을 사게 되었다. 프란츠와 힐더 존슨은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장래의 사위를 껴안았다. 비록 이 일은 그녀의 남자 친구가 것처럼 쉽게 받아들여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프랜시스에게는 당혹스런 일이기도 했으나, 그녀와 톰은 그들의 스웨덴 조상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미 예고되어 있었을지 모른다고 회고했다.

초기 공황기에 파이어니어 스테이크를 관리했던 해롤드 비리 부장은 “콘디스 테라스”의 거주자들을 잘 알고 있었다. 리 스테이크 부장은 톰 몬슨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는 그를 대제사에 성임하고 감독단 보좌로 성별했다. 후에 톰은 리 장로에게 해군 예비대의 지위에 대하여 그리고 전부터 갈망해 왔으며, 이미 받은 해군 소위 임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다. 그는 리 장로가 임관 사령을 거부하고 해군 예비역에서 제대할 것을 권고하고 요청하

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의문을 표했다. 톰은 임관 사령은 문제가 없다 해도, 제대를 요청하는 것은 극동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몬슨 형제, 신앙을 더 굳게 가져요. 형제님의 미래는 군대에 있지 않아요.”라고 리 장로가 말했다. 톰은 그 충고에 따라 한국 전쟁이 발발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해군 예비역에서 제대해 나온 그룹에 속했다. 해롤드 비리 장로에 대한 몬슨 장로의 사랑은 그의 첫 아들을 토마스 리 몬슨이라고 이름지은 것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몬슨 장로가 성임되고 십이사도 정원회에 소개되고 난 후 처음으로 스테이크 대회 지명을 받은 것은 캐나다의 에드먼턴으로, 해롤드 비리 장로를 수행하여 간 곳이었다. 신권 복지 위원회의 일원이었고 파이어니어 스테이크의 전 감독이자 친구였던 글렌 엘 러드가 그들과 함께 갔다.

십이사도의 일원으로서, 몬슨 장로는 협의 문제에 있어서 리 장로와 긴밀하게 일했다. 몬슨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은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성인 협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되어 성인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과 연구 과정을 책임맡았다. 그는 또한 지도자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스테이크 대회에서 가르칠 교회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총관리 직원들을 훈련시킬 책임을 졌다. 그는 후에 선



위 왼쪽: 1986년 덴버 콜로라도 성전 헌납식에서의 대관장단. 왼쪽으로부터: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위 오른쪽: 1991년 '47 개척자의 날에 시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몬슨 부대관장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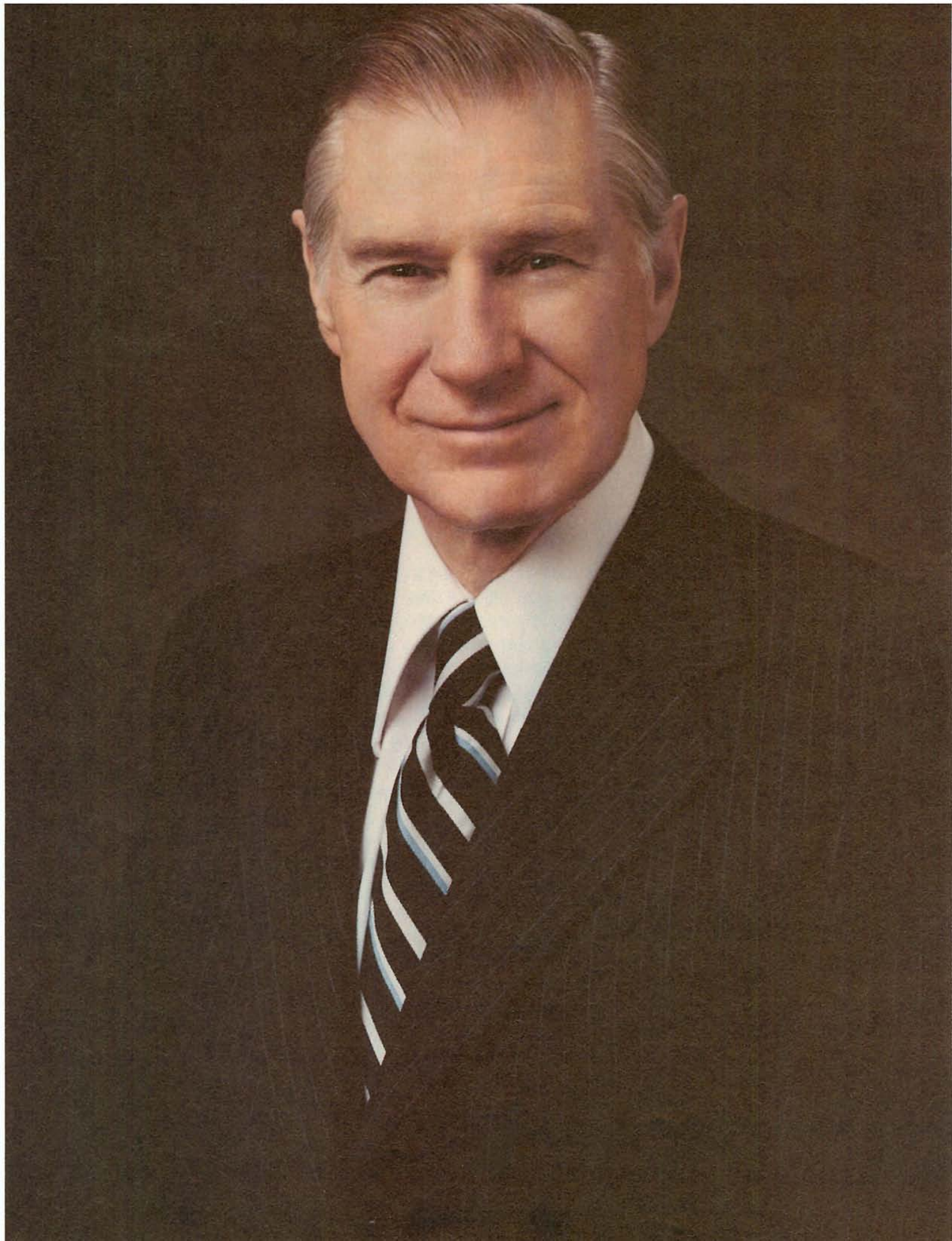
교사 집행 위원회의 위원장과 교회 복지 집행 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그는 교회 회원이 아닌 궁핍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표했다. 예를 들면, 그는 세인트 빈센트 드 폴 무료 급식소와 솔트레이크시티에 무주택자 대피소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강력히 추진시켰다. 그는 최근에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의 초교파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카톨릭 교단이 수여하는 훈장을 받았다. 한편, 몬슨 형제

는 웨스트 코스트와 남태평양 및 유럽에서의 선교 사업을 관리하는 사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유럽 지역을 맡은 20여 년 동안 몬슨 부대관장은 그 지역을 빈번하게 방문하면서 철의 장막을 넘어 독일의 프라이버그에 성전을 세우는 기초 작업을 착수시켰다. 그것은 1985년 6월에 헌납되었다. 4년 후에, 정부의 최고위 지도자와 몬슨 부대관장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동독 출신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이러한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과 연관된 일련의 사건은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영향력의 임재하심을 보여 주었다.

몬슨 형제는 지명받은 어떠한 일에서나, 비범한 영적인 민감성을 보여 주었다. 그는 영의 속삭임에는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지체없이 수행했다. 그는 일단 신권 지도자 그룹과 악수를 하고 나면, 그가 악수를 한 어떤 감독이 축복사가 될 것인지를 "알았다". 그가 되풀이해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식별의 영"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그의 축복문 속의 약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계시적인 통찰력은 지도자의 부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권고할 때나, 전화로 통화할 때, 개인적인 행동을 취할 때, 이러한 영감을 받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그가 풍부하게 받아온 것은 영적인 은사이다.

32년 동안 교회의 회원들은 연차 대회에서 몬슨 부대관장의 설교를 듣고 영감과 깨우침을 받고 기쁨을 느꼈다. 그의 설교와 저술에서 가장 의미깊고,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의 역할에 꼭 들어맞는 것은 그의 간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우리의 맏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며,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간증을 품고 이 필멸의 지상 생활을 끝낸 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대 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질서 정연한 원리들과 그가 가족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사실상 그를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영원한 동반자요 아내인 루스 파우스트 자매가 말하는 두 가지 비슷한 에피소드가 특히 그 실례가 된다.

첫번째 에피소드는 그가 1972년에 처음 받은 총관리 역원 부름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던 손자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의 밤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 주위를 돌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며 그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은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못된다면, 총관리 역원으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결코 아버지나 할아버지로서의 부름에서 헤임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1920년 7월 31일에 태어난 제임즈 이 파우스트는 그의 봉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실성과 정열을 소년 시절에 배웠다.

그가 대관장단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있었던 두번째 에피소드에서도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바로 그와 똑같은 일을 했다. 1995년에 그는 이제 22명으로 불어난 손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못된다면, 대관장단의 일원으로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었다. 파우스트 자매는

“그분은 평생 동안 줄곧 그렇게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했지요.”라고 덧붙여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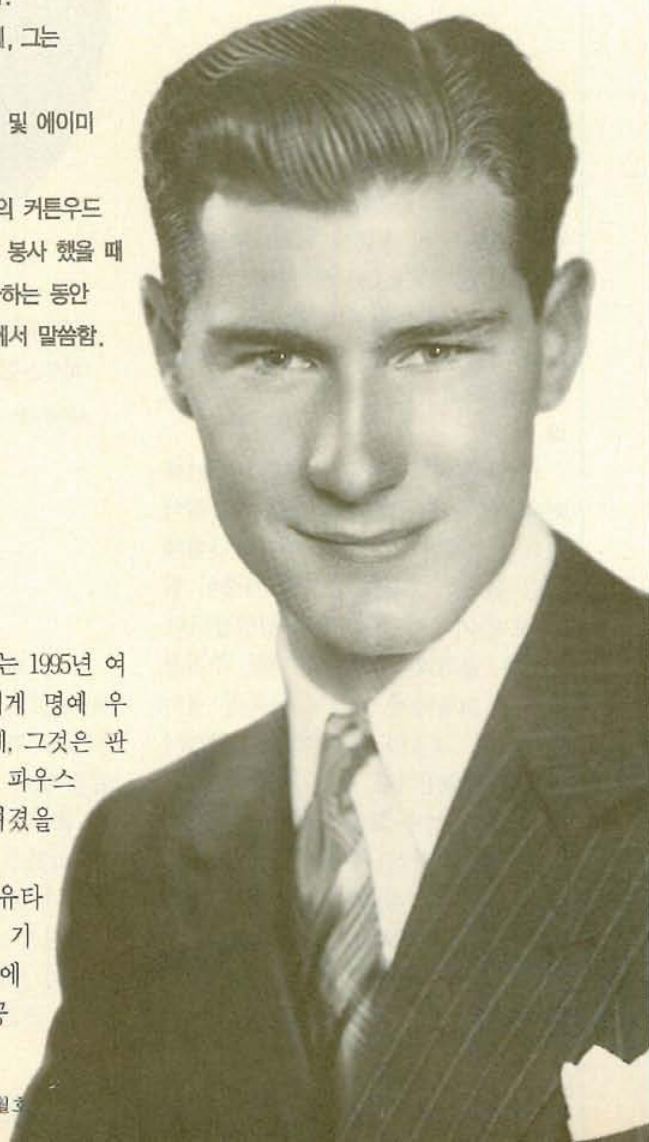
그의 확고한 우선 순위에 수반되는 것은 대단한 성실성이다. 이 중요한 속성에 대한 필요성은 “정직하라. 그리고 약속을 지켜라”라는 피 시 스테이너 감독의 조언에 의해 젊은 짐 파우스트와 그의 동료 제사들 머리 속에 깊이 주입되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이 조언을 늘 따랐으며, 그 결과 공적인 생활에서나 사적인 생활에서나 늘 성실했으며, 당연히 그는 평생 동안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왔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단순한 압력에 의해서는 굴복하지 않지만, 원리에 의해서는 설득된다는 것을 안다. 아들 로버트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주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좋게 일컬어지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권고했는가를 인용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성실성을 “너희 자신에게 진실하라”라는 그의 아버지의 좌우명



사진: 하워드 무어, 데저렛 뉴스사 제공



위 왼쪽: 미 공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제임즈는 1943년 4월 21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루스 라이트와 결혼했다.
 아래 오른쪽: 군 복무를 하기 전에, 그는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다.
 위 오른쪽: 부모인 조지 파우스트 및 에이미 파우스트와 아들 제임스와 함께
 왼쪽: 1956년에 솔트레이크시티의 커튼우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봉사 했을 때
 아래 왼쪽: 십이사도 보조로 봉사하는 동안 1974년 6월에 상호향상회 대회에서 말씀함.



과 연관시킨다. 이 말은 그의 형제 자매들의 견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는 능력과 함께 이 성실성까지 겸비하여 그의 동료 변호사들에 의해 유타 주 변호사 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1962년부터 1963년까지 재임하기도 했다. 이 두 가지 자질은 그가 법을 집행하는 방법과 현지 천주 교회를 포함하는 그의 법률 회사의 고객들에 의해 그토록 신임 받는 까닭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유타 주 변호사 협회는 1995년 여름에 파우스트 부대관장에게 명예 우수 변호사 상을 수여했는데, 그것은 판사였던 그의 아버지 조지 파우스트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을 큰 명예였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유타 주 의회에서 일했던 때를 기억하여 천성적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공

직에서의 폭넓은 경험으로 그는 수 년 동안 교회 공보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매우 훌륭하게 봉사하였다.

그러므로 제임스 파우스트 장로가 총관리 역원이 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총관리 역원들의 신임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성실성과 능력을 겸비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얻고자 노력했다. 그것은 그가 개혁 성향을 가진 유타 입법 연구 위원회에 임명된 후, 기구가 보다 확대된 유타 헌법 개정 위원회에 임명되었던 1960년대의 일이었다.

그는 성실성과 능력과 더불어 특별한 충성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오랜 비서인 마가렛 베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분은 판사이건 수위이건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잘 대해 주십니다.”

“저는 충성이라는 의미를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잇달아 이발 약속을 두 군데에다 하곤 하셨습니다. 첫번째 약속은 너무나 늦어서 눈이 어둡고 손을 떠는 세계 제일차 대전에 참전했던 친구인 할아버지의 이발사와의 약속이었고, 두번째 약속은 이발 기술이 매우 뛰어난 다른 이발사와의 약속이었습니다.”라고 그의 아들 마커스는 말한다. “아버지는 부드러운 손길을 가지고 계시며 감정을 상하는 일 없이 민감한 상황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젖은 콘크리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이시오.’”라고 마커스가 덧붙여 말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비록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정다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지라도,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때때로 일의 유익을 위하여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려운 말이라도 할 수 있다. 그의 우정은 친구가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썼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과 십이사도 평의회의 동료 회원으로서 저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로 구성되는 본부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으며, 데저렛 뉴스 출판사의 경영진에서 수년간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판단력과 예민한 지력 그리고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간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집단의 상황에서 삶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보냈지만,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혼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 그의 충성심과 성실성은 그 때에도 역시 작용하였다. 세계 제일차 대전에서 남태평양의 수송선(83일을 걸려서 더 큰 배를 항구로 견인하였음)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혼자 예배드렸다. 혼자 소형 찬송가를 들고 노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는 경전을 읽고, 명상하고, 은밀히 기도하곤 했다. 종종 이것은 배의 앞 머리로 가는 것을 의미했고, 그곳에서는 파도가 그의 노래를 삼켜 버리곤 했다. 물론 그러한 꾸준하고 영적인 단련은 그의 부모인 조지 에이 파우스트와 에이미 핀린슨 파우스트에게서 받

은 특별한 훈련을 반영한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그가 처음으로 말씀을 할 때, 혼자 된 파우스트 대관장의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들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받은 부름에 대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그에게는 부모님의 훌륭한 훈련 뿐만 아니라, 개척자이자 개종자였던 조부모님의 귀중한 훈련이 있었다. 예를 들면 그의 할머니는 태버내클에서 브리감 영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던 이야기를 어린 집에게 해주었다. 그보다 수십 년 전, 청년 시절에 독일에서 이민 온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증조부는 유타를 지나서, 당시 황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 필모어에서 한 젊은 숙녀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반해서 꼭 결혼 반지를 살만큼의 사금을 마련한 다음, 급히 돌아와서 그녀와 결혼하고, 그 후에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어머니의 물몬경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았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어머니의 오래되어 낡은 물몬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중하게 고이 다루었는데도, 어떤 책장들은 모서리가 접혀 있었고 겉표지는 얇게 닳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에게 다른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물몬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 경지에 있었습니다.”(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10쪽 참조) 때때로 성전 모임에서, 파우스트 형제는 소중히 사용된 조그만 물몬경



사진: 데이비드 콘리, 데저렛 뉴스사 제공



위 왼쪽: 1976년 상파울루 성전의 기공식에서
 위 오른쪽: 제넷과 에드윈 큐 캐넌 이세 부부 (왼쪽), 레이첼과 렌들
 앤 맥베이 부부 (오른쪽), 첫번째 나이지리아 상주 선교사들과 함께
 한 파우스트 장로 내외
 아래 오른쪽: 1974년 연차 대회 사진
 아래 왼쪽: 브리감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를 설립하는 동안
 파우스트 장로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및 당시의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이었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함께 긴밀하게 일했다.

을 꺼내서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함께 뜻이 깊은 구절을 함께 나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을 제2보좌로 부른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교회에서의 오랜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성숙함을 지니고 이 직책에 부름받았습니다.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닦은 지혜와 결합된 이 경험은 그가 받은 성스

러운 부름에 실질적인 힘을 더해 줍니다.”
 일찍이, 복음의 씨앗은 제임스 에스드라스 파우스트의 내면에 있는 비옥한 땅에 뿌려졌다. 그는 불과 17세에 와드 주일학교 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스물여덟 살에 감독으로 성임되었다. 그때 이후로



그는 교회 봉사에 기초를 두고 모든 일을 했다.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 십이사도의 지시 하에 봉사하는 지역 대표, 십이사도 보조, 칠십인, 사도. 이러한 모든 부름에서, 그는 훌륭한 지도자란 항상 훌륭한 경칭자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의미 심장하게도, 파우스트 부대관장을 십이사도 보조로 부른 해롤드 비리대관장은 젊은 제임즈 이 파우스트를 감독으로 성임한 사람이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항상 경청을 한 후 자기의 주장을 말한다. 동료들은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문제의 가장자리를 빙빙 도는 토론을 참을성 있게 듣고 난 다음에 주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여러번 보아 왔다. 그는 신중하게, 그러나 필요하다면 대담하게 그렇게 한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며, 더욱이 그가 질문을 하면 그들은 열의를 보인다. 그는 대답을 기다린 다음 경청한다.

트랙 선수로서 여러 개의 메달을 받았고 미식 축구에서 재능을 발휘했던 그레닛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800미터 계주 선수로 뛰었던 유타 대학에서의 대학 교육은 두 번 중단되었는데, 한번은 브라질에서 33개월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였고, 또 한 번은 세계 제이차 대전 때 미 공군으로 복무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생애에서 그를 준비시켰던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성스러운 목적을 볼 수 있다. 젊은 파우스트 장로가 브라질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두번째 선교사 동반자인 워 그랜

트 뱅거터 장로가 그를 맞이했다. 당시 선교 사업이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 선임 동반자는 젊은 파우스트 장로가 그가 처음 방문했던 집들 중의 한 집에 대담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뱅거터 장로는 유익이 될 만큼 충분히 대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했다. 뱅거터 장로는 심지어 접촉하는 일이 파우스트 장로의 일이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파우스트 장로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나 창문을 열고 젊은 파우스트 장로와 대화를 나누어 인연을 통해 그녀의 가족인 디도벨릭소 가족 모두가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앤사인, 1986년 10월호, 6쪽)

수년 후인 1975년, 파우스트 장로는 브라질에 거주하면서 남 아메리카 전역을 관리했다. 한 대륙 전역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곳에나 문제들이 있었지만, 상파울루 성전의 건축을 격려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면서 파우스트 장로는 기쁨을 느꼈다. 그에게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브리질에서의 교회의 성장은 계속 "경탄과 개인적인 만족의 위대한 원천"이 되었다.

그에게 영향을 미친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의 아내 루스였다. 그들은 그레닛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고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군에서 태평양으로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잠시 휴가를 나온 동안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루스에 대한 그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들이 세계 제이차 대전 동안 헤어져 있을 때, 그가 루스에게 매

일 편지를 썼다는 사실에서 측정될 수 있다. 편지가 불규칙하게 도착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녀는 한꺼번에 90통의 편지를 받았다. 루스의 고용주는 그녀가 집에 가서 그 편지들을 읽을 수 있도록 오후에 일을 쉬는 것을 허락해 줄 정도였다.

"제 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여성을 존경하는지를 항상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항상 다정 다감하게 대하셨습니다."라고 리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모범적인 사랑과 존경은 깊어만 갔다.

가족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의 이러한 태도는 아들 제임스 에프 파우스트에 의해 확인되었다. "저의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들보다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더 잘 대접해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배우자들이 그들 자신의 부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에 가까운 혹은 동등한 사랑을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갖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그가 1978년 9월 30일에 십이사도로 지지받았을 때 있었던 일로 잘 알 수 있다. 그가 단상에 있던 총관리 역원들로부터 따뜻하고 감사에 찬 축하를 받고 있을 때, 그의 가장 큰 관심은 그의 아내가 어디에 있는가였다. 오늘날까지, 그는 여러 대회에서 말씀을 한 후에, 즉시 아내가 보내는 미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둘러보았다.

기꺼이 경청하는 사람의 전형인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한번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장로님은 아내가 없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24시간을 보낸 다음, “내 인생에서 루스 라이트의 애정에 찬 정다운 지지와 훈육이 없었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떠한 것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충격입니다.”(엔사인, 1981년 7월호, 35쪽)라고 말했다.

딸인 제나는 아버지의 “타고난 지혜”와 함께 “이 천사 같은 어머니에 대한 큰 사랑과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정서에 비추어 보면, 총관리 직원들의 가족의 복지에 관한 그의 정규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목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여러 가지 부름에서 봉사했던 시절에 이미 상당한 명성을 얻었지만, 동료들은 그가 수년에 걸쳐 자신의 높고 거룩한 부름을 수행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아 왔다. 그리하여 그의 부름에 대한 수행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성결케 되어 왔다. (니파이이서 32:9 참조)

이와 같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엄격한 경험들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단 하루 밤을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그에게 준 어린 양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를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격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 양이 죽어 버렸다. 세계 제일차 대전에서 폭탄 파편의 부상을 입고 돌아와 계셨던 그의 아버지는 “너는 어린 양 한 마리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니?”라고

하면서 어린 짐을 꾸짖었다. (성도의 빛, 1995년 5월호, 45쪽 참조) 목자의 책임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독신 성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포함해서 보기 드물게 성실한 목자였다.

그가 묘사했듯이, “교회가 새로이 조직되어 분투하는” 세상의 여러 곳에 그는 풍부한 교회 유산을 지니고 간다. 그러나 그는 유산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제일차 대전 동안 가나에서의 경험에 말해 주는 것처럼, 해외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가나에 있던 어느 날, 파우스트 형제가 모기장 아래서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다. 한 가나인 수행원이 자신의 지갑을 뒤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파우스트 형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친절한 가나 인이 담요를 덮어 주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가나 인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보충했다.

예리하지만 온유한 관찰력을 가진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 목적에 관해서는 판단하기를 더디 한다. 한 개인이 윗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래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윗 사람 뿐만 아니라 아래 사람에게도 겸손한 사람이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스리랑카, 우간다, 케냐, 라트비아 및 짐바브웨에서 헌납 기도를 드렸다. 그는 중국을 방문하여 재헌납하였고, 수십 년 후에는 교회 설립을 돕기 위하여 서아프리카로 돌아갔다.

그는 세상의 사람들이 빈곤과 정치

적인 종속에 관하여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하여 이례적인 감수성과 공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그의 또 다른 노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브리감 영 대학교의 장엄한 예루살렘 센터가 있는 이스라엘에서와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에서의 사업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전 시장인 테디 콜렉과 보기 드문 신뢰의 결속을 수립했다. 그와 루스는 최근의 성지 방문에서 테버내를 합창단과 동행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의 지시 하에, 그 당시 칠십인의 일원이었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도움과 함께,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노력으로 인하여 중동의 비기독교 국가들에서 많은 훌륭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유타 주 델타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에게 그것은 힘들고도 바쁜 여행이었다. 지나간 일은 앞으로 계속되는 일의 서막이 된다. 오랫동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종종 그가 밀라드 군에 있는 그의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보낸 여름철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과업을 성취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개척자 유산의 진가를 이해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이 전세계적인 교회의 대관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내내 준비시키면서 이 지구의 수많은 곳에서 그를 도구로 써 오셨다.

총관리 직원들의 인격은 교회로 보내는 서한과 같은 그들의 설교를 통해

서 알 수 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경우도 역시 그렇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1972년 10월에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며, 그는 결코 뒤를 돌아다보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것은 “곤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았던” 초기 사도들의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다. (마태 복음 4:20 참조)

사도로서의 부름에 응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도의 직분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신성한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점 하나만 본다면 저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권세를 통해 알았습니다.”

“결코 녹슬지 않는 열쇠”라는 제목의, 1994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그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예언자, 계시자, 선견자로서 열쇠를 지닌 사람들의 가르침과 권고를 따르도록 촉구했다. (엔사인, 1994년 11월호, 72~74쪽 참조)

또 하나의 특별히 감동적인 설교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어서 드릴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의 신앙과 헌신을 묘사한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요한복음 6:5~14 참조)라는 제목의 말씀이다. 그는 “문자 그대로 수 천 명을 먹이면서, 어떠한 주목이나 인정을 받음도 없이 자신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봉사하는 불과 떡 다

섯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에 해당하는 은사를 받은 이름없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말했다. (엔사인, 1994년 5월호, 5쪽 참조)

이와 같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한다.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라는 또 다른 설교에서 파우스트 장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우리의 훌륭한 예배당에도 있을 것이고, 훌륭한 신학 연구원에도 있을 것이고, 거룩한 성전에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가족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엔사인, 1990년 8월호, 67쪽 참조)

그는 자신의 영적인 유산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위대한

여성이 됨”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자신의 손자녀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주었다. 영을 지닌 모든 부모는, 아버지 리하이처럼, 자신들의 자녀가 생명 나무의 맛있는 열매를 먹기를 몹시 원하게 된다. (니파이일서 8:10~17 참조)

이렇게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많은 것을 그의 부름으로 가져 와서 그는 현재의 어려움에 겁을 먹지 않는다. 그는 또한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과 기회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요컨대, 제임스 에스드라스 파우스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를 알고 있다. 한번은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이 파우스트 장로의 비서인 마가렛 배리에게 “짐은 순금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

서로에게 헌신적인 부부인 파우스트 부대관장과 파우스트 자매.



모범은 가장 큰소리로 울려 퍼짐

아네트 안토넬리

사진: 존 룩

나는 16세 가량된 말일성도다. 나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며, 강한 긴중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그다지 주안점을 두지 않는 일—예를 들면, 욕설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물론 욕설했던 때도 있다. 난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고, 대화 때마다 늘 욕설을 하진 않았다. 그런 반면 가끔 “나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다지 크게 걱정하는 일도 없었다.

어느 여름 방학 때 부주의하게 욕설하는 일이 거의 없는 한 사람을 사귀기까지 그 버릇은 계속되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욕설하기를 삼가는 품성을 갖게 되었다.

신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러한 품성 덕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연극 지도 선생님이 그 친구와 나에게 범정 싸움에 관한 대본을 나누어 주셨는데, 거기에는

불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친구와 그걸 통독할 때마다 나는 욕설하는 일을 삼가기 위해 내가 맡은 대사 부분을 수정했다.

우리는 몇 주 후 학교 강당에서 이것을 무대에 올려야 했다. 나는 예전과 다름없이 대사 부분을 고쳐서 연기했으나, 그 친구는 대본에 쓰여진 대로 했다. 그런데 그날 늦게 비회원 친구 하나가 내게 흥미있는 말을 해줬다. 그는 내가 불경한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위해 방향을 바꿔 연기했을 정도라면 교회가 내 삶의 아주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지적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찔했다. 내가 말일성도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모든 사람이 지켜 보고 있다는 것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쁜 말을 없애기 위해 대사 몇 줄 고친 게 이렇듯 중요하리라곤 짐작도 못했다. 친구는 내가 정말 큰 인상을 심어 주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계명마다 목적이 있으며 그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내가 한 일로 인해 만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적으로 연결시켜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그러니 지금은 모범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받은 소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어 가질 훌륭한 방법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



“그분의 말씀으로 더 많은 소망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

예수님은 부활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은 그분을 미처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잃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 친구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 자신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경전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다. 이윽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분은 “사라지셨으며”, 그들은 서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누가복음 24:32)라고 말했다.

경전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음

누구나 슬픔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위안과 소망을 비는 것은 자연스러운 원리다. 종종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거나 읽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의 불길이 훗훗 타오르게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힘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힘든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부인인 페트리샤 홀런드 자매는 결혼 초 남편의 학업과 여러 번에 걸친 이사 및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해 내조를 하면서 많은 자매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본인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한 번은 대학원생인 남편이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고, 홀런드 자매는 와드 상호

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은 적도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경전을 좀 더 의미 있게 읽길 바라오... 우리가 [지독한 스트레스로부터]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영성을 통한 것 외엔 없소. 영이 주는 활력으로 그걸 이기게 될 것이오.”라며 자상하게 권고해 주었다.

홀런드 자매는 “말보다 행동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계속해서 남편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 좋아,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 보자 하는 태도로 경전 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물론 경전에 그 답이 나와 있었죠.” (뉴이러, 1981년 4월, 42~43쪽)

다른 사람들도 소망의 메시지를 필요로 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하게”(모로나이서 8:26) 하는 성신께 다가갈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은사 중 하나는 그들도 똑같은 소망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이본 블랙 자매와 남편 러셀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들의 봉사가 있었기에 수백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부부는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반을 100개도 넘게 만들어 물론경을 교재로 삼아 가르쳤다. 학생들은 글을 배우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더욱 아름다운 처소를 소망”(이더서 12:4)하기 시작했다.

소망은 신앙과 자비가 그러하듯 구원에 필수적이다. (모로나이서 7:38~47 참조)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해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며 끝까지 참는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니파이서서 31:20)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 어떻게 하면 경전 공부 좀더 효과적이 될까? □



소망할 때

나는 안이한 생각을 감사의
기도로 바꿈으로써
행복을 찾았다.

게리 크리스텐슨

처음엔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다.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듯이 나도 창가에 앉아 별을 쳐다보며 눈을 지그시 감고 소망을 빌곤 했었다. 당시 난 어린이 마음에서 조랑말, 강아지, 요정이 나타나 내가 원하는 걸 도와주길 바라는 등 정말 많은 걸 빌었다. 소망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다.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별을 쳐다보는 일은 중지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소망을 비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욕심이 많았다. 조랑말이나 강아지를 원하는 않았지만 캐시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소년이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린다 같은 옷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도 있다.

내게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갖고 있는 걸 볼 때면 언제나, 만일 그게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소망을 품기 시작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거의가 내게 없는 걸 갖고 있는 듯했다.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스스로도 왜 이럴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했다. 나는 “만일 형편이 달랐더라면” 혹은 “너무 불공평해”라든가, “하필이면 왜 나야”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투와 자기 연민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겠는가? 혹 안 믿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답을 교회 찬송가 책에서 찾았다. 어느 일요일 나는 아주 멋진 머리를 하고 있는 소녀 뒤에 앉아 있었다. 내 머리도 저렇게 길고 아름답게 빛났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그 때 우리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찬송가, 142장)를 부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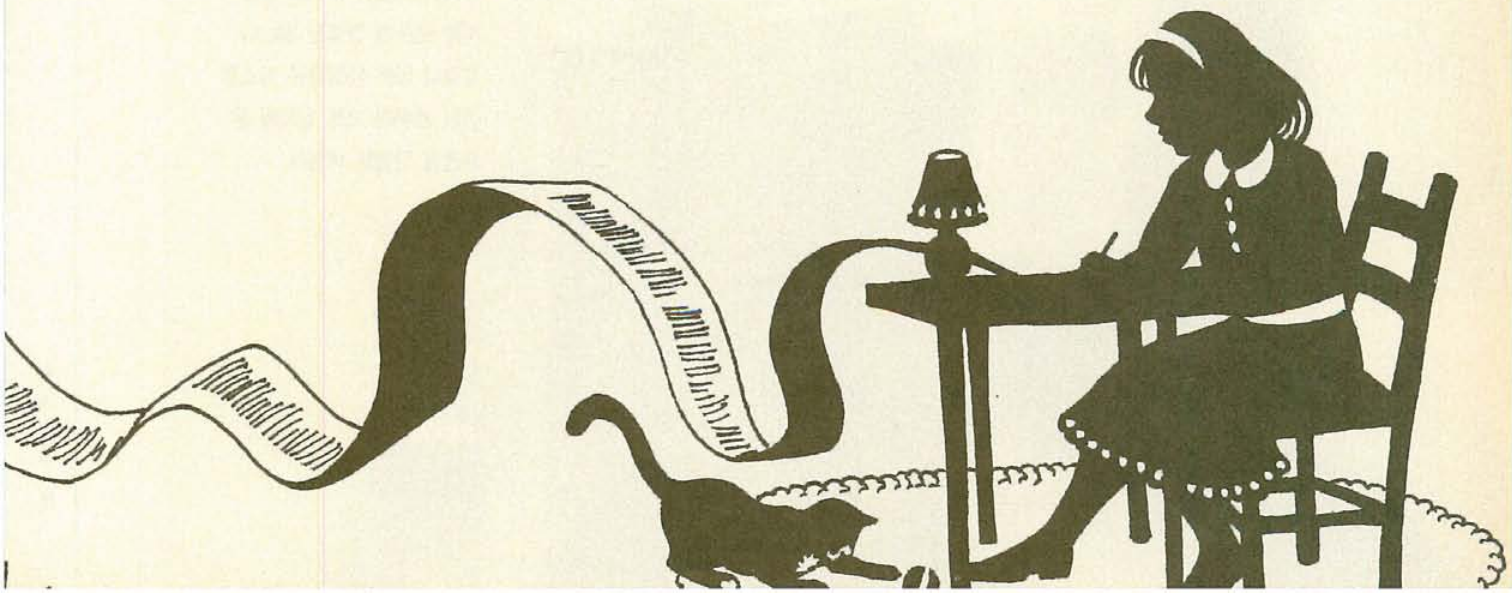
아마 이제껏 그 노래를 수십 번은 부르고 또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의미가 와 닿질 않았었다. 처음으로 그 가사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난 왜 항상 없는 것만을 바랐던가? 왜 화만 내고 속았다는 느낌만 가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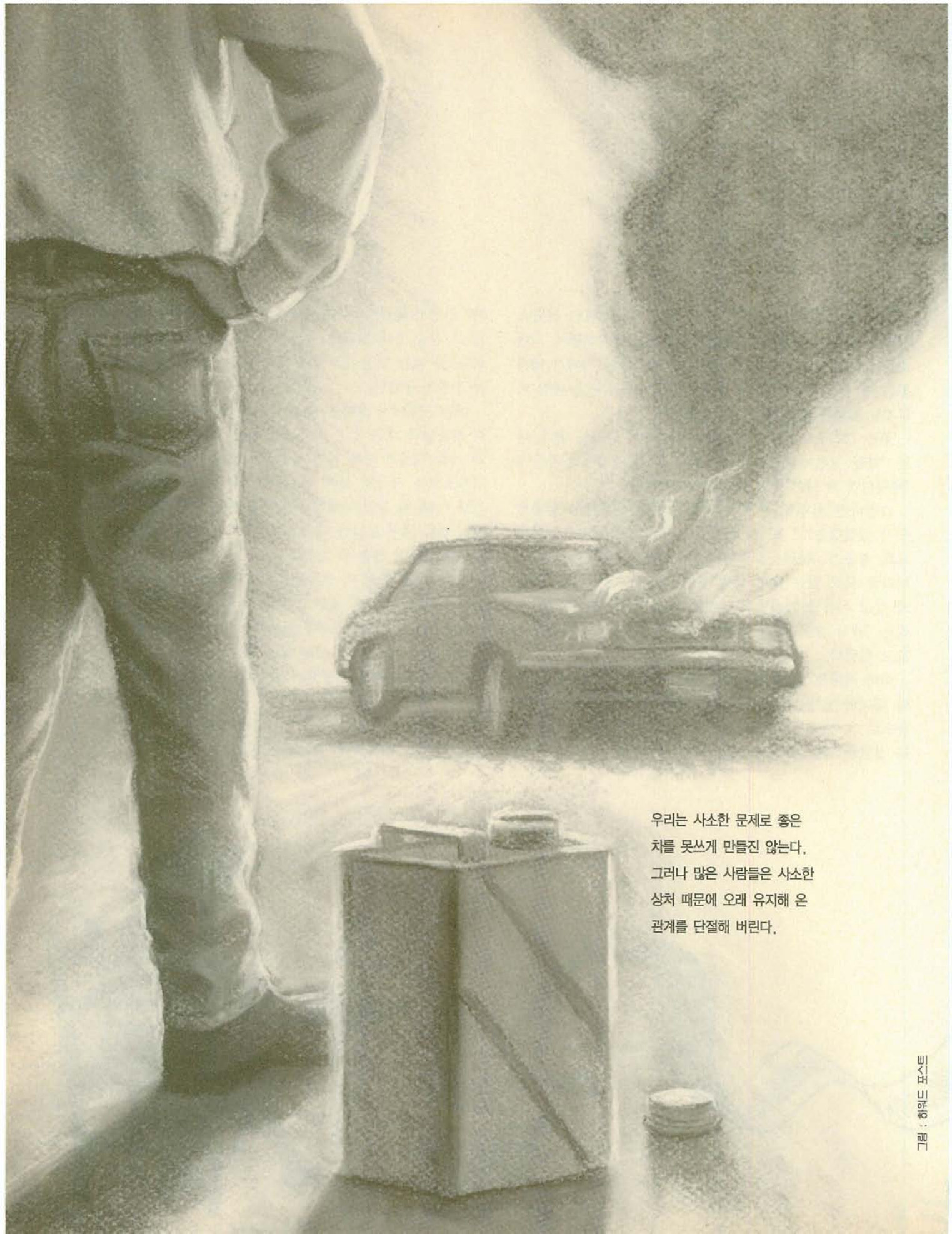
까?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 해답은 바로 그 찬송 안에 있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지 않은 것이다. 늘 없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했다.

나는 교회에서 돌아온 다음 찬송가에서 하라는 대로 똑같이 해보았다. 내가 받은 복의 목록을 만들었다. 맨 처음엔 집과 가족, 식량과 의복 같이 실질적인 것들이 눈에 띄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껏 누려 온 기회나 긍정적인 경험, 복음에 대한 이해, 내 삶에 더해진 특별한 인생관 등에 대해 적었다. 하나 하나 적어 보니까 다 합해 100가지도 넘었다. 찬송가 가사대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오랫동안 이 목록을 갖고 다니면서 다시 예전의 그 버릇에 빠질 것 같을 때면 그것을 꺼내 보고는 했다. 그것은 시기심이나 자기 연민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마침내 그 목록을 더 이상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될 때가 왔다. 과도하게 뭔가를 소망하는 일이 더는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복을 더 잘 인식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에 대해 기뻐할 수 있었다. 결국 지나치게 많이 소망하지 않음으로써 훨씬 더 행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





우리는 사소한 문제로 좋은
차를 못쓰게 만들진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상처 때문에 오래 유지해 온
관계를 단절해 버린다.

“너희로 실족지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마음에 상처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다섯 가지 열쇠

페리 엠 크리스텐슨

여러분은 값비싼 새 차를 사기 위해 몇 년 간 저축하며 크나큰 희생을 했다. 결국엔 차를 사기에 충분한 만큼 여유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새 차를 집으로 몰고 오는데, 쿵쿵쿵하는 소리가 들린다. 차를 길 옆에 대고 확인해 보니까 타이어가 펑크났다. 쿵하고 문을 닫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소리친다. “있는 돈을 다 들여서 산 건데, 나 참 기가 막혀서...”

곧 이어 트렁크에서 휘발유 한 통을

꺼내 차에 끼얹고 불을 지른다. 펑크난 타이어와 함께 새 차는 불길에 휩싸여 버린다.

참 어리석은 얘기로 들리지 않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좋은 차를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누군가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오래 유지해 온 관계를 “불길에 날려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교회 활동을 그만둔 적은 없던가?

와드나 스테이크 회원 내에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이었던 메리온 디 행스 장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고 말씀했다:

“만일 부당하게 기분이 상하거나, 오해를 받는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죄인 취급을 받는다거나,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거나, 억울하게 비난받는다거나, 무시당한다거나, 사랑하

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거나, 제안을 거부당한다거나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화를 내고, 더 비통해 하고, 원한을 품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문제를 풀고 용서를 하여 마음의 짐을 없애버리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과 내세에서 우리 삶의 성격과 질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엔사인, 1974년 1월호, 20쪽)

다음의 다섯 가지 열쇠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미 마음이 상했다면 신속히 그 과정을 치유해 줄 것이다:



1. 탄탄한 기초를 세움

우리는 자신에 대해 불안한 느낌들 때 마음이 상하기 쉽다. 여러분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일이 기억나는가? 당시 여러분은 무척 자신을 의식했었을 것이다. 또는 누군가가 뒤에서 여러분의 옷을 보고 조금이라도 웃지 않을까 걱정이 됐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여러분의 외양

을 두고 하는 게 아닌가 신경이 쓰였을지도 모른다. 마음이 상하기가 시간 문제 아니던가?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며, 자신의 거룩한 잠재력을 인식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결의와 간증이 확고해야 한다.

암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 왕국을 빼앗으려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부러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욕하려 했다. 예를 들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사무엘하 16:5~10 참조)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다시 찾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시므이가 주님의 기름부음을 입은 자를 저주했다면서” 그를 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윗이 보인 태도는 그의 인간 됾됨이와 가치를 잘 나타내 준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사무엘하 19:21~22)

다윗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다. 증명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므이를 벌주었다면 다윗의 왕됨을 확인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못 됐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간증과 확신은 비난과 상심이라는 회오리 바람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한다.



2. 의도를 이해함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할 때, 비록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마 그 사람이 우릴 도와주기 위해 그랬을 거라는 아량을 갖고 우리는 그 비난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니파이인의 사령관 모로나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완전한 이해심을 갖” 추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돈독” 했던 사람이다. (앨마서 48:11~13)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그도 결점이 있었다. 니파이인 군대를 지휘해 레이멘인들과 대항하게 하는 순간에도 그는 제이라헤몰라 땅의 사령관이자 총독인 페이호랜에게 서한을 보내 힐라멘의 군대를 증강시킬 것과 식량 준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앨마서 59:3) 그러나 페이호랜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모로나이는 페이호랜에게 다시 서한을 보내 군대를 도와주질 않는

다며 그의 “아랑곳” 하지 않음을 호되게 비난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막대한 손실을 당한 것은 그대들의 죄악으로 인함이라.”(엘마서 60:7, 28)라고 그는 기록했다. 또 “그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음을 알며, 그대들이 하나님의 법을 발 아래 밟고 있음을 아나니”(33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페이호랜을 나무랐다. 페이호랜을 비난하는 장문의 편지를 끝낸 모로나이는 제이라헤물라에 가서 “칼을 들게 해서라도”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겠다고 위협하기로 결론내렸다. (35절)

페이호랜은 모로나이가 모르는 내부 사정으로 그 자신이 싸움을 해야 했으므로 병사와 식량을 보내 주실 않았다. 즉 레이맨인들과 결탁해 정부와 왕에 저항하는 세력이 일어나 제이라헤물라를 장악하게 됐던 것이다.

모로나이의 호된 비난에 대해 페이호랜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만일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페이호랜의 반응에서 우리는 자제심과 이해심에 관한 교훈을 얻게 된다: “그대의 편지에서 그대는 나를 책망하였으나, 내가 이를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대의 높은 지조를 기뻐하노라.”(엘마서 61:9) 페이호랜은 모로나이의 비난 속에 숨은 참 뜻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로나이가 구하고자 한 것은 오직 하

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자유와 복리뿐이었다. 호된 비난에도 불구하고 페이호랜은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로나이의 의로운 뜻을 이해하고 기뻐했다.

부적절한 관정을 받는다거나, 억울하게 비난받는다거나, 감정이 상했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본다. 비난 뒤에 숨은 참 의도는 건설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3.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함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야고보서 1:19~20) 우리가 조언이나 불평 혹은 비난을 “듣기를 속히”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마 그것은 우리가 진실

로 우리 자신에 대해 뭔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조언이나 비난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듣기를 속히 하”는 것 말고도 우리는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 우리는 비난에 대해 금방 화내거나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언쟁이란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빈정거릴 때 야기되기 쉽고, 이 때 사람들은 말로써 상대를 공격하게 된다. 감정에 너무 성급하게 지배되어 버리면 자신과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다.

엘마의 아들 코리엔톤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지은 심각한 죄로 괴로워했다. 이에 대해 엘마는 다음과 같이 나무랐다. “너는 너의 사명을 던져 버리고 레이맨인의 땅으로 가운데 있는 시론 땅으로 창녀 이사벨을 따라갔으니,

“참으로 창녀 이사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나의 아들이, 그것이 합당한 변명이 되지 못하리다. 너는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어야 되었으리라.

“나의 아들이, 바라노니, 회개하여 죄를 버리며, 눈에 비치는 탐욕을 뒤쫓지 말고...”(엘마서 39:3~4, 9)

코리엔톤은 그의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회개함으로써 이를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속히” 들었는가? 또한 “노하기를 더디”할 만큼 겸손했는가? 물론경은 코리엔톤의 즉각적인 반

용에 대해선 아무 기록도 없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는 “엘마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파”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엘마서 43:1) 코리엔톤은 그 땅에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며, 그 곳에 평화와 번영을 안겨다 준 선교사 아들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엘마서 49:30 참조)



4. 양갈음하려 하지 않음

한때 관리 감독단 일원이었던 에치버크 피터슨 장로는 에리조나 주 피닉스 외곽 사막에서 10대 소녀들이 경험한 일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한 소녀가 방울뱀한테 물렸다. 나머지 소녀들은 즉각 응급조치를 하는 대신 뱀을 따라가 바위로 쳐죽이려 했다. 이들이 이렇게 양갈음을 하겠다고 값진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불행히도 독이 소녀의 표피에서 발과 다리의 조직 깊숙이로 퍼져 나중엔 무릎 밑 부분까지 절단해야 했다.

“그것은 참 무분별한 희생이었습니다. 복수심이나 용서할 줄 모르는 생각과 태도에서 비롯된 희생은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영혼을 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라고 피터슨 감독은 말했다.

기분이 상했을 때 생기는 증오심이나 복수심 혹은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쪼먹는다. 결국 마지막에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또 피터슨 감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실제로든 상상으로도- 용서하게 되면 용서 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이나 그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생의 고귀한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한 셈입니다.” (엔사인, 1983년 11월호, 50~60).



5. 화해를 구함

나의 두 살 난 아들 브라이언은 어느 날 친구인 스코티와 함께 모래통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모래가 던져지자 어딘가 다쳤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스코티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부모로서 얼른 달래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모래통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두 발짝도 채 옮겨 놓지도 않아서 브라이언이 먼저 팔을 뻗어 스코티를 안아 주었다. 그러자 흐르던 눈물도 멈추고 상처 받은 마음도 회복되었으며, 결국 두 아이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는 전과 다름없이 다시 놀기 시작했다. “만일 너희 형제 자매 중 어떤 자가 너를 해칠 때에는 형제 자매와 단 둘이 만나며 만일 그 형제 자매가 죄를 고백하면 서로 화해할지니라.” (교리와 성약 42:88)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조용히 그 사람을 불러내 허심탄회하게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거센 비난과 폄박의 물결에 휩싸일 것을 알고 계셨다. (요한복음 16:2 참조) 십자가에 못박히기 전 몇 시간 동안 그분은 제자들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분이 누구며 또한 그들이 누군가를 보는 영원한 시각을 제시해 주셨다. 사실 구세주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것들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다. 특히 제자한테 배신당하기 전 일에 대한 설명 부분이 그렇다. (요한복음 13~17장 참조) 예수님은 제자들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실망케 하는 어떤 요소들도 이겨 낼 수 있게 기초를 탄탄히 세우시려 했다. 그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6:1)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족지 않게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간증과 대인 관계가 값비싼 새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바람 빠진 타이어가 잠시 우리의 여행을 방해한다고 자동차 자체를 불태워 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 □

물론 메시지

지혜의 말씀
금하라!



(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바울의 선교 여행

켄트 피 잭슨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세계를 지배한 두 가지 큰 사회·정치적 현상으로는 로마 제국과 그리스 문화를 들 수 있다.

신약 시대의 모든 사건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났다. 바울이 살던 당시, 로

마인들은 약 1세기에 걸쳐 지중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기독교의 확산을 위해서는 하나의 축복이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경계선 내에 평화와 안정을 구축했기 때문에, 안전한 여행이 일반적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도로도 건설되었고, 지방 지도자들에 의한 해적 행위, 약탈 행위 및 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줄어들었다. 누구든 로마 제국 전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다.

신약 시대에는 또한 그리스 문화의



에 나 오 는 장 소 들

지배를 받기도 했다. 그리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그리스어가 그 곳의 토착어를 대신하기에 이르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했다. 이것은 즉 바울이 그리스 내에서는, 어디서나 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중 일 년 이상 머물며 가르쳤던 곳인 고린도는 오늘날 그 곳을 찾는 이들에게 응징했던 과거의 진재만을 보여 준다.

아폴로 신전의 세로 홀을 새긴 기둥 위쪽으로 아크로폴리스(도시의 언덕 위에 있는 성채)가 보인다.



사진 촬영: 에프피지 인터내셔널; 기터 사진 촬영: 켄트 피 잭슨, 표시된 곳 제외

● 로마

바울은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르는 동안 끌로새인들, 에베소인들, 빌레몬, 빌립보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디모테에게는 두번째 서한을 보냈다.



렘브란트; 국립 미술관



그린 & 프리먼; 스톤 하우스

● 멜리데

난파됨 (사도행전 27:10~28:11)

바울의 선교 여행에 나오는 경전상의 장소들

- 제1차 선교 여행 : 사도행전 13:1~14:26
- 제2차 선교 여행 : 사도행전 15:36~18:22
- 제3차 선교 여행 : 사도행전 18:23~21:15
- 로마 여행 : 사도행전 27:1~28:30

지인들과 그리스어로 대화가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당시, 그 지역의 국제 공용어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상당히 객관적인 세계관과 여러 관습 및 사상 체계와 만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울의 전도 대부분은 도시에서 행해졌다. 그 중에 로마나 안디옥 같은 지역은 세계 최대의 도시에 속하는 곳이었다. 반면 더베나 베뢰아와 같은 곳은 크기가 그보다 작았다. 크

지 중 해

기, 위치 및 지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안의 도시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이를테면, 극장, 공중 목욕탕 및 분수대, 성전, 아고라(기둥이 여럿 있는 상점, 성소, 공공 건물들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시장) 등이 그에 속한다. 또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도시들도 많았다. 바울도 먼저 이 곳에서 전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메섹(사도행전 9:3~25)

다소의 사울(나중엔 바울로 알려짐)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어찌해야 하오리까"라고 한 사울의 대답에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뚜렷이 담겨져 있

● 빌립보

지진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남

(사도행전 17:15~18:1)

● 드로아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청년을 살려냄 (사도행전 20:6~12)

"잘 모르는 하나님"

에 대해 설교함 (사도행전 17:15~18:1)

● 아덴(아테네)



그린 & 프리먼; 스톤 하우스

● 고린도

거짓 송사당함 (사도행전 18:1~18)

●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도함 (사도행전 17:1~10)



구스타프 도르

장 레스브르, 지토몽/이브 리소스, 노예



● 에베소
병든 자를 고침(사도행전 19:1~20:1)

● 밀레도
"흉악한 이리"에 대해 경고함
(사도행전 20:15~38)



더블류 지 시몬즈

●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가르침
(사도행전 13:14~50)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린 재: 영: 프로비덴스 리트

● 루스드라
불구자를 고침
(사도행전 14:8~20)

● 박수가 소경이 됨
(사도행전 13:6~13)

● 바보



프레데릭 윌즈

● 안디옥

● 바울의 선교 본부와 같은 곳
(사도행전 11:26)

제임스 클리크



● 개심
(사도행전 9:3~25)

● 다메섹

● 아그립바 왕 앞
(사도행전 23:33~26:32)
가이사라



구스타프 도르

● 예루살렘

● 로마 군병들에 의해 폭도들로부터 구출
됨(사도행전 21:17절~23: 31)



옛 도시 다메섹으로 이르는 로마의 문은 오늘날 "직가라고 부르는 길" 위에 보호처럼 서 있다. **앞이 안 보였던 시울은 성스런 개심의 과정을 거쳐 이 곳으로 인도됐었다.**

다. 눈이 먼 상태로 도시로 이끌려간 그는 "직가라 하는 거리"의 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거리는 도시의 동서를 잇는 주요 도로였다. 후일 거기서 그는 신권의 축복을 받고 시력을

되찾았다. 이어서 다메섹에서 침례받고 그 곳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날의 다메섹은 시리아 공화국의 정비가 잘 되지 않은 수도로서, 인구가 백만이 넘는다. 과거 바울이 알았던 옛 도시들은 현재는 아름다운 회교 사원, 무덤, 궁전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직가라고 부르던 거리 역시 아직 남아 있으며, 로마식 대문이 부분적이거나 잘 보존되어 있다.



그리스 북부의 빌립보의 유적(오른쪽)에는 아고라(장터)의 잔재가 함께 나와 있다. 루스드라의 발굴되지 않은 언덕(아래, 왼쪽)은 바울이 훗날 자신의 선교 동반자가 될 디모데를 개심시킨 도시에 대해 알 수 있는 전부이다.



루스드라(사도행전 14:8~20)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기간중에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갔다. 거기서 그는 날 때부터 불구인 자를 고쳐 주었다. 현지인들은 두 사도가 가진 권세를 목격하고 나서 그들을 신으로 받들었다. 그들은 바나바를 헬라 신 중에 으뜸인 쏘스(제우스)로, 바울은 신들의 대변인 격인 허메(헤르메스)라고 불렀다. (어떤 성서 번역본에는 이 이름들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로마 신들인 주피터와 머큐리를 사용하고 있다.) 쏘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



와 화관"을 가지고 왔음은 그 곳 관습에 따라 두 사도에게 제사하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급해진 바나바와 바울만이 이 숭배자들의 그런 행동을 단념시킬 수 있었다. 루스드라의 초기 개심자인 디모테는 후일 바울의 충실한 선교 동반자가 되었다. 오늘날 터어키 공화국의 남쪽 중심부에 있는 루스드라는 폐허 상태로 남아 있다.

지중해 국가들의 이곳 저곳에서는 돌로 된 부조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거기엔 제사 준비용으로 화관을 드리우고 있는 소가 묘사되어 있다.

빌립보 (사도행전 16:9~40)

바울의 두번째 선교 여행 기간중 그와 그의 동반자들은—디모테, 실라, 누가 (사도행전 16:1~25 참조)—에게해를 건너가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이들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빌립보였다. 거기 머무르는 동안 바울은 한 젊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몰아냈다. 그녀의 주인들은 짐을 쳐서 그녀로부터 이득을 챙기고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이 망하자 그와 실라를 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소란죄를 뒤집어 씌워 고소했

다. 이 두 선교사는 채찍을 맞고 투옥되었다. 밤에 천지가 진동하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결박이 풀렸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가르쳐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까지 개심시켰다.

바울은 빌립보의 개종자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다. 뒤에 그는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남으라는 소망과 자신의 사랑을 담아 편지를 보냈다.

고린도(사도행전 18:1~18)

고린도는 그리스 연안에 있는 전략



요충지로서 크게 융성하던 도시였다. 도시 옆의 언덕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언덕 위의 도시)와 도시 중앙의 고대 아폴로 신전이 고린도의 중심 위치에 있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온 것은 2차 선교 여행중이었으며, 거기서 일년 반 정도 머물렀다. 시도행전은 바울을 격대시하는 유대인 가운데 일부가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를 시민을 협박한 죄로 재판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로마 총독은 그 일에 관심이 없었으며, 사건을 각시켜 버렸다. 고고학자들이 아고라에서 공공 연단을 발견한 적이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개심시킨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마술을 행”했으며,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사도행전 19:19).



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 장소가 바울이 재판을 받던 곳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바울은 고린도의 개심자들을 떠나온 후에도 계속 그들과 연락을 했다. 신약 전서에는 그가 3차 선교 여행 기간중에 그들에게 쓴 서신 둘이 나와 있다.

에베소(사도행전 19:1~20:1)

에베소는 상업, 문화 및 종교의 중심지로 번성하던 곳이다. 이 곳은 특히 근동에서 비롯된 주요 교역로의 끝인 에게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이유로 해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또 이 곳이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데미(아르테미스)(어떤 성서 번역본에는 이에 상당하는 로마신인 다이아나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음)의 숭배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던 곳이다. 길이가 약 110미터, 넓이가 약 50미터 가량 됐던 이 곳은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크며 가장 유명한 건물가운데 하나였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중에 에베소에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전역에 걸친 선교 활동을 지휘했다. 비록 그와 그의 동반자들이 에베소에서 상당한 결실을 거두기는 했지만, 아데미 숭배를 위한 용기를 만들었던 은세공인들로부터 적의를 샀다. 이들은 바울 일행에 대해 대규모 군중 집회를 갖기 시작했다. 폭도들은 그 도시



에베소의 중심가(맨 왼쪽)의 옆으로는 신전, 기념물 및 호화스런 가옥들이 들어서 있었다. 아데미 신전은(위) 당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었지만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다.

의 극장으로 몰려가, 자신들이 믿던 여신을 위해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반대해, 몇 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어키 서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고대 유적지 중 가장 전설적인 곳이다. 극장 또한 아직 남아 있는데, 바울의 시대가 지난 다음 대폭 확대되어 수용 인원이 2만 명이 넘었다. 한때 위용을 자랑하던 아데미 신전도 경제 쇠퇴, 지진, 약탈 등을 겪고 난 후 지금은 돌무더기로 변해 버렸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그가 남긴 간증은—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복음은 만인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길임—세계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고 있다. □



가슴 가득한 사랑

마일스 티 투어슨

어떤 비극도 카이타노 장로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사진 촬영: 디노 브이 판티

아마 여러분은 필리핀의 산타 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쥐 죽은 듯 고요한 이 농촌 마을엔 볼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수도 마닐라 시의 전경을 보기 위해 산에 올라가보면 거기엔 하나의 카항가-항가, 즉 경이의 세계가 펼쳐진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산타마리아의 다른 경이 중의 하나인 어느 평범한 인상의 말일성도 선교사에 관해 들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그 역시 카항가-항가임에 틀림없다. 비엔베니도 카이타노

장로는 왼손 하나로 넥타이를 매면서 동시에 그 손으로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를 것처럼 특별한 선교사가 되게 한 건 그의 영적인 강인함이다.

비엔을 만남

.....

처음 만나 보면 비엔은 필리핀 산파블로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19세의 보통 선교사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일단 그와 악수를 해보라.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비엔은 지진 때문에 오른쪽 팔 전체를 잃었다. 하지만 그게 얘기의 전부는 아니다.

비엔은 대가족 출신이다. 홀로 된 어머니를 돕기 위해 카이타노가의 온 자녀들은 눈에서 등이 훔 정도로 일을 해야 했다. 그렇지만 이력저력 학교에는 다닐 수 있었다. 비엔은 영어, 기사 쓰기, 미술 과목에서 우수 메달을 받아 왔다. 육상 경기에서도 우승을 했다.

그의 형 크리스는 일찍이 침례를 받았으나, 나머지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

크리스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다른 장로들에게 자신의 집에 다시 가서 비엔을 만나 달라고 부탁했다. 그후 얼마 안 있어 비엔은 복음 토론회를 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곧 고등학생이 된 비엔은 새 친구들을 사귀는 일과 같은 그 밖의 일들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형은 절 억지로 교회에 가게 하지는 못했죠. 당시 전 저를 다시 활동 회원으로 만들려는 형에게 거세게 반항했어요.”라고 비엔은 말한다. 그런데 성격도 좋고 친구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공허함이나 목적 없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비엔은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떠올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영원히 잊지 못할 날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비엔은 펠리핀 기독교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비엔은 이렇게 회고한다. “저희는 강의실에서 지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진에 간혀 버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 얘길 하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강의실 전체가 흔들렸다. 지진이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앞다투어 도망갔다. 학교 건물은 광란의 춤을 쳤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가려는 바로 그 순간, 비엔은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부서진 의자가 제 배를 찔렀고, 한쪽 다리가 반쯤 무릎 꿇린 자세였으며, 얼굴은 숙인 상태였죠.”라고 그는 당시를 떠올린다. 그의 부러진 오른팔에서

나온 피가 무너진 강의실 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졌는데도 그의 머리만큼은 무사했다. “반 친구들은 살려 달라고 울며 난리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죽어갔다. 비엔 위에 누운 채 죽은 친구도 셋이나 되었다. 지진은 그렇게 오후를 쑥밭으로 만들었으며, 곧 이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라며 비엔은 말한다. 그렇게 울던 중에 초등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떠올랐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사 하나 하나가 조용한 대기 속에 스며들면서 그는 마음의 화평을 느끼게 되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왔다. “전 이렇게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 더 살아야 한다면 절 살려주세요.’” 비엔은 기도를 드리면서 구세주가 생각났다고 한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으셨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역경은 그가 영적으로 놀랄 만큼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폐허에서 살아 나옴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비엔도 다시 희망의 불을 당겼다. 구조대가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그를 찾아내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의 가족한테도 소식이 갔다. 비엔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곧 이어 의사들이 그의 오른팔을 절단했다. “정신이 든 저는 오른쪽 팔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울부짖었죠. 전 혹시 제가 꿈을

비엔이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하는 가운데 갖는 기쁨은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닐라 선교사 훈련원에서도 그는 하나의 영적인 귀감이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헌신적 봉사는 교회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모든 사람의 삶에 깊은 감동을 줄 것이다.

꾸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격은 곧 슬픔으로 바뀌었다. “하던 일을 더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허전하더군요.”

병상에서 3개월을 보낸 다음 비엔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의 50명에 가까운 친구들과 죽고 없었다. 비엔에게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다 사라진 듯 보였다. 오른손잡이인 그가 어떻게 왼손 하나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인가?

비엔은 어느 날 조카를 가르치는 중에 자신도 알파벳 쓰기 연습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처음엔 좌절의 연속이었다. “마음 같아선 다할 것 같았는데 손이 그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생각났다. 비엔은 운명을 바꿔 놓은 그 사고 후 1년도 채 되기 전에 쉽게 글을 쓰게 된 것은 물론이고 유화까지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대학교에도 다시 복학했다.

일년이 지나자 그는 다시 살게 된 인생을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보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우리가 네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라며 그의 어머니는 반대했다.

“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비엔은 어머



니를 확신시켜드렸다.

몇 달 뒤 선교사 비엔은 가족에게서 온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거기엔 "우리 걱정은 말거라. 우린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라는 글귀가 있었다.

장애에서 축복으로

비엔의 성품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닐라 선교사 훈련원에서 그는 하나의 영적인 귀감이었으며, 그의 헌신적인 봉사는 산타 마리아 지부를 감동시켰다. 그러나 비엔은 야구 경기를 못하거나 벼 수확 시에 같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 같은 게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한다.

비엔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로는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13)라는 글이 있다. 이 성구는 비엔으로 하여금 모든 길 다 하나의 학습 경험으로 인식하게 해준다.

그는 선교사 생활은 "많은 것을 배우는 학교와 같아서 복음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참 많이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 또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또다른 학교의 콘크리트 더미 속에 있는 거나 같다고도 덧붙인다.

비엔에게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 물어 보면 아마 그는 이러한 생활 수칙을 이야기할 것이다. "전 하나님께 다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건강을 주시길 간구드렸으며, 결국 전 불편은 하지만 과거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의 우정의 손길을 여러분에게까지 펼 것이다. —원손으로 따뜻한 악수를 청해 올 것이다. □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법을 배움

데이비드 모라자 브리토
그림: 풀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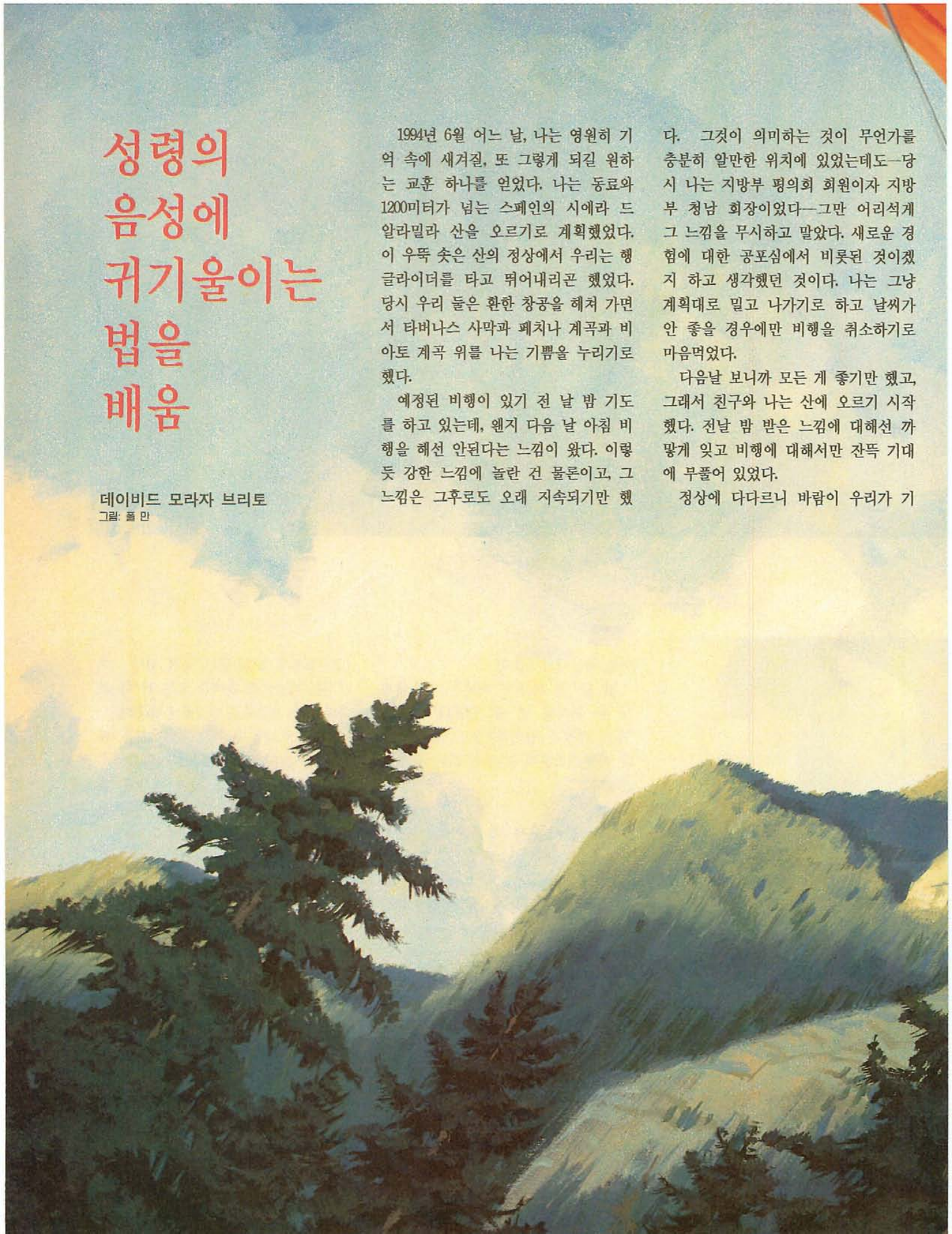
1994년 6월 어느 날, 나는 영원히 기억 속에 새겨질, 또 그렇게 되길 원하는 교훈 하나를 얻었다. 나는 동료와 1200미터가 넘는 스페인의 시에라 드 알라밀라 산을 오르기로 계획했었다. 이 우뚝 솟은 산의 정상에서 우리는 헬글라이더를 타고 뛰어내리곤 했었다. 당시 우리 둘은 환한 창공을 헤쳐 가면서 타버나스 사막과 페치나 계곡과 비아트 계곡 위를 나는 기쁨을 누리기로 했다.

예정된 비행이 있기 전 날 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웬지 다음 날 아침 비행을 해선 안된다는 느낌이 왔다. 이렇듯 강한 느낌에 놀란 건 물론이고, 그 느낌은 그후로도 오래 지속되지만 했

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를 충분히 알만한 위치에 있었는데도—당시 나는 지방부 평의회 회원이자 지방부 청남 회장이었다—그만 어리석게 그 느낌을 무시하고 말았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냥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로 하고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만 비행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보니까 모든 게 좋기만 했고, 그래서 친구와 나는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전날 밤 받은 느낌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 비행에 대해서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정상에 다다르니 바람이 우리가 기







대한 방향에서 불어오지를 았았다. 글라이더를 다 조립하고 나니까 이번에도 바람이 또다른 방향에서 불어오기 시작했다. 어깨에 중압감이 느껴졌고 과연 이대로 비행을 해야 할지 의문이 생겼다. 그렇지만 친구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먼저 이륙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다.

정상을 떠나는 순간,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착륙 지점 바로 밑에 있는 나무를 향해 급속히 떨어지고 있었다. 떠날 때 함께 갖고 간 기기에서도 위험 하강을 알리는 경고 소리가 계속 울렸다. 처음엔 멀리 있어 보이던 나무 꼭대기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 왔다. 나무의 크기도 갈수록 커 보였다. 세차게 부는 바람은 행글라이더를 마치 바람에 나는 나뭇잎처럼 만들었다. 난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좁은 계곡에 갇혀서 비행을 계속할 수 없었기에, 산허리에 부딪혀 죽고 말거라는 두려움이 들었다. 바람은 첫 전을 세차게 때렸고 난 너무 무서웠다. 마치 "넌 여기 오면 안돼!"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공포의 순간에 전날 밤 받은 느낌이 생각났다. 그건 바로 경고의 음성이었다는 느낌이 들자, 나는 즉시 주님이 내가 무사하도록 하기 위해 보여 주신 관심을 무시했던 일을 회개했다. 나는 큰소리로 기도하면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혼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간구했다.

갑자기 다시 통제력을 되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착륙 지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듯한 곳이 눈 앞에 들어왔다. 착륙 지점 가까이로 접근하는데 바람이 다시 나를 때렸다. 나는 10여 미터 아래로 내려갔다. 행글라이더는 공기라곤 전혀 없는 듯한 땅을 향해 돌진해 갔다. 막 땅에 부딪히려는 순간 행글라이더의 날개가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나는 무사히 내려앉게 되었다. 행글라이더에서 몸을 빼고 난 뒤 보니 살이 몇 군데 베이고 행글라이더의 두 부분이 부서져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나를 보살펴 주신 주님께 매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을 떠났다. 내 생각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생명을 구해 주셨다.

얼마 후 침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던 나는 성령이 내가 그 프로그램에 넣으려고 했던 자료에 대해 증거하고 계신다는 느낌에 너무 놀랐다. 내가 모은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의 아들의 방문을 받고 있는 요셉 스미스를 묘사하는 그림이 있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17)

성령이 내 가슴을 채워 주심에 따라 나는 순종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용서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성령이 다시 한 번 나와 교통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났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경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시하지 않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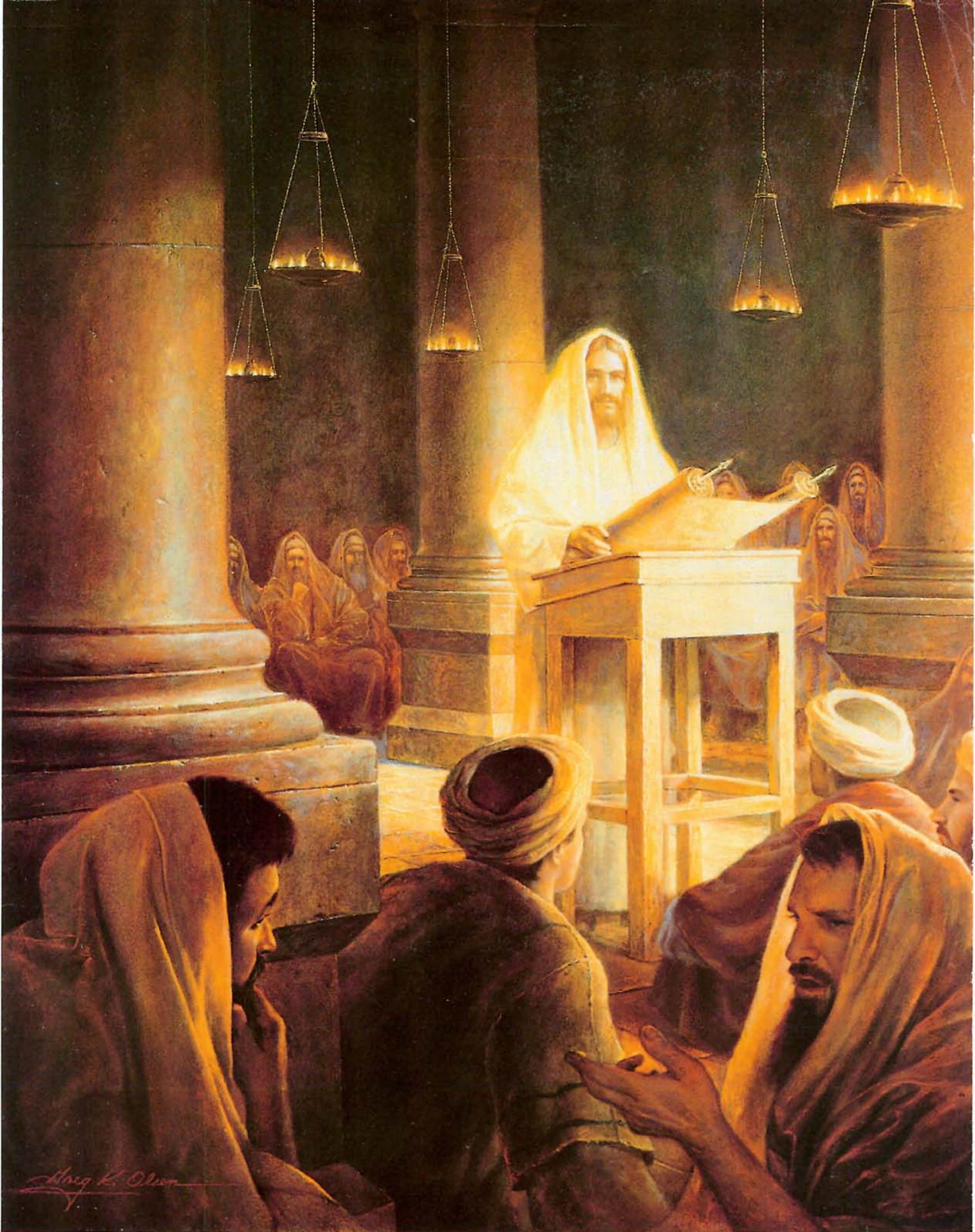


그림: 그레그 케이 올슨, 나사렛에 있는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사진 제공: 더저널 뉴스

“**제** 사람의 관리 대체사가 (교회에 의해) 선출되어 그 직분에 임명 성임되며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 교회의 대관장단인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7:22)

1995년 4월 연차 대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가운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1보좌(왼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제2보좌.

몬슨 부대관장과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약력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는 8쪽과 16쪽을 참조한다.